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읍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 위촉식 개최

부안군은 21일 부안군 대표축제의 발전을 위해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읍면 주민, 대학교수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군 대표축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예정이다.

위촉식 후에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 기본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갖는 등 본격적인 축제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제가 부안 해돋이부터 변경된 만큼 올해 군의 사자성이 담긴 '견인창래(堅忍鎗來)'의 마음으로 제11회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부안군민과 부안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 대표축제의 발전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예산 신규사업 87건 발굴

고창군, 총사업비 1조2943억원 규모... 미래지향적 전략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신규사업 발굴 본격화에 나섰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0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2025년·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3차 보고회까지 거치면서 총사업비 1조2943억원 규모의 87건의 사

업을 찾아냈다.

핵심은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이끌 미래지향적 전략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창은 신규 사업으로 △전북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500억원) △수소도시 조성사업(400억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340억원) △동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150억원) △서해

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 2단계(100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민 정책 체감도가 높고 다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안전한 고창을 위해 △고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92억원) △대동·옥산·회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08억원) 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고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스마트팜 보급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건립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홍덕·신림·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농어촌도시 드림배달 시범사업 등 각종 사업이 발굴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점사업에 부합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완성도를 높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20일 오후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군수 주재로 '2025년·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산 밀 비축기지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심의 통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안군의회, 국산 밀 비축기지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심의 통과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의장 김광수)는 지난 21일 제3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산 밀 비축기지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심의 통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1인당 1년에 33kg의 밀을 소비하지만 자급률은 1%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가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 민 식량안보를 위해 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기 의원은 "정부의 밀 수급정책과 맞물려 새만금 농생명 농지조성

을 통한 부안군의 밀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산 밀 비축기지는 국산 밀 산업기반 구축과 자급률 제고 방안에 일환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국가 전략시설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아동보호 안전망 '촘촘히'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4개 시·군 통합운영 거점기관

정읍시가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1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북면에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웅철-cut네이버스 사무총장, 고경운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김제, 고창, 부안) 관계자 등 유관기관 8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남권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수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위탁운영법인 공모를 통해 cut네이버스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실, 치료실 교육장, 사무실 등 10개의 실을 구비하고 관장을 비롯해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 17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서남권 지역 학대피해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한다.

이학수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미니수박' 육성 총력

고창군이 지역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고창수박'의 명성을 '고창미니수박'으로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고창군 성내면 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은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니수박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한동식)'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미니수박 면적은 지난해 약 56ha에서 올해 봄 식재면 약 80ha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34.5%(22년 인구총조사)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많은 유통업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미니수박은 품종도 다양하여 블랙망

고수박, 블랙박스, 애플수박 등 여러가지 색과 모양의 수박들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다. 판매가격 또한 일반수박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업인에게도 약 10%가량 높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심어진 고창 미니수박은 올해 5월부터 맛을 볼 수 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2022년 고창군의 6개 미니수박 작목반을 하나로 합친 단체로 약 100명의 회원이 합체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고창 미니수박의 발전을 위해 △미니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시범사업 △미니수박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공동연구)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한우 사육농가 안전 보호구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우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우 사육 농가에 안전 보호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은 가족의 돌발적인 행동을 의한 접촉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료 급여 및 사육장 청소 때 다른 분진 흡입과 가족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 중독, 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우 사육 중 1년간 발생하는 사고율은 16.4%인데 이는 한 사람이 6년에 한 번 꼴로 사고를 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농작업을 못하는 날은 평균 17.1일이다. 현재까지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성, 소비자 안전 등에 치우쳐져 왔기에 1차 생산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안전과 보호구 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등의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개발 중이거나 안전성이 입증된 15종의 보호구를 대상으로 제품 개선을 위해 개인보호구의 현장 적응성을 조사했으며 농작업 안전보건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도 제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